

ISSUE BRIEFING

2020. 03. 23
Vol. 217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이강진_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군산 산업·고용위기 2년, 일자리 변화의 진단과 전망

CONTENTS

1. 군산지역 산업 및 경제의 단면.....	2
2. 정부 재정지원에 따른 최근 고용 호조세.....	3
3. 위기업종의 고용 전망	6
4. 위기업종의 전 재직자의 현주소	7
5. 시사점	10

1. 군산지역 산업 및 경제의 단면

◎ 산업·고용위기는 산업생산, 수출 등 산업적 기반을 무너뜨려 지역경제 침체 초래

- 군산 수출의 64.4%(’12년)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수출 비중이 8.8%(’19년) 수준으로 크게 하락

- ’15년 자동차·조선 수출은 1,163백만 달러로 군산시 전체 수출액 3,647백만 달러 중 45.6%로 축소, ’19년에는 2,384백만 달러 중 8.8% 인 210백만 달러 수출에 그침

〈표1〉 군산지역 수출 현황

구분 (백만\$)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군산시 (A)	7,031	5,052	3,799	3,647	2,011	1,830	3,108	2,384
합계 (B=C+D+E)	4,530	2,955	1,448	1,663	903	464	416	210
자동차 (C)	2,132	1,569	646	623	180	200	146	98
자동차 부품 (D)	1,384	930	454	323	256	253	229	109
선박 및 부품 (E)	1,014	456	348	717	467	11	41	3
군산시 비중 B/A	64.4%	58.5%	38.1%	45.6%	44.9%	25.3%	13.4%	8.8%
자동차 C/A	30.3%	31.1%	17.0%	17.1%	9.0%	10.9%	4.7%	4.1%
자동차 부품 D/A	19.7%	18.4%	12.0%	8.9%	12.7%	13.8%	7.3%	4.6%
선박 및 부품 E/A	14.4%	9.0%	9.1%	19.6%	23.2%	0.6%	1.3%	0.1%

*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 조선업의 글로벌 산업 비즈니스 사이클 리스크 회복, 군산은 기약 없음

- 조선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에 의해 일부 지역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군산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회생 위한 특단조치 필요

- 경남과 전남의 경우 ’18년 저점을 지나 ’19년 회복세(전남 ’18년 68.8 → ’19년 83.5, 경남 ’18년 66.3 → ’19년 87.2)를 보이고 있으나 전북은 여전히 하락세 진행중(’18년 20.2 → ’19년 13.9)

〈표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

지자체	’14	’15	’16	’17	’18	’19 p)	증감
전국	109.9	100.0	88.8	68.2	63.2	73.0	-36.9
전북	101.4	100.0	103.3	38.4	20.2	13.9	-87.5
전남	52.7	100.0	111.2	72.2	68.8	83.5	30.8
경남	117.1	100.0	100.6	76.9	66.3	87.2	-29.9

* 출처: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통계청)

◎ 산업·고용위기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함

- 군산지역 아파트 가격지수는 ’15년 1월 105.2, ’17년 12월 99.9, ’19년 10월 89.0으로 떨어졌으며, ’20년 표준공시지가는 전국평균이 6.33% 증가했으나 군산시는 0.59% 증가에 그침

- 특히 산단 인근 오식도동 지가상승률은 -0.94%, 원룸 공실률은 81.2%(845호실/4,509호실)

군산 산업·고용위기 2년, 일자리 변화의 진단과 전망

- 소규모 점포 공실률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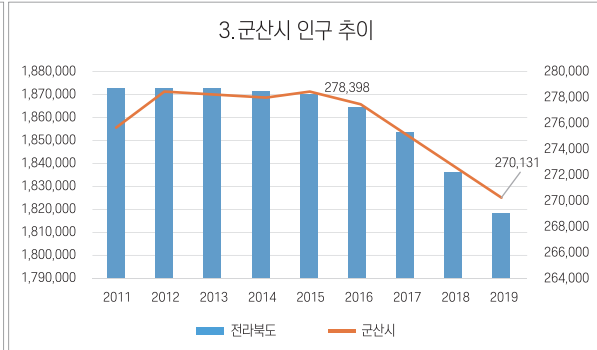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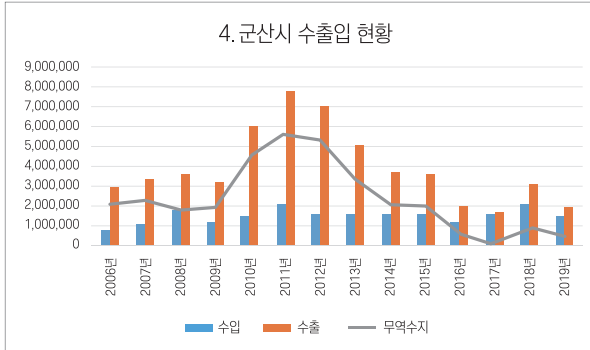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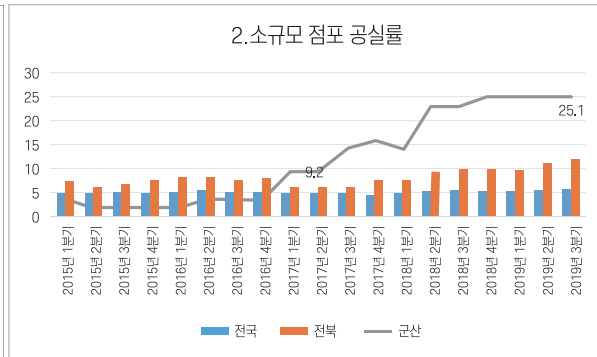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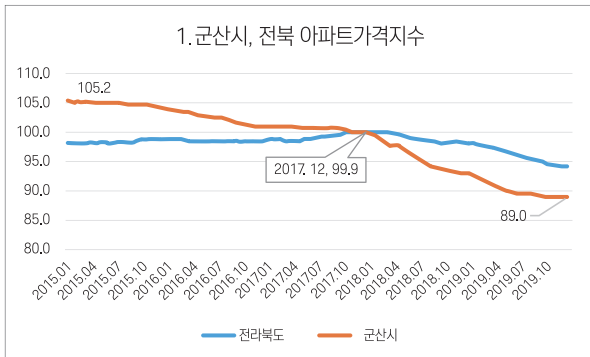
- '19년 3분기 공실률 25.1%(전국평균 5.9%), 산업·고용위기 직전의 '16년 4분기 3.5% 대비 7배 이상 급증

- 군산시 인구유출 가속화

- 군산시 인구는 '19년 1,997명, '18년 2,070명 순유출 등 '15년 543명 순유출에 비해 급격히 증가

- 두 산업의 위기가 군산 수출을 크게 위축

- '19년 수출은 '12년 경기 정점의 7,033백만 불의 26%인 2,013백만 불(10월 누계) 수준



* 출처 : 위쪽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감정원(기준 '17.11=100), 통계청,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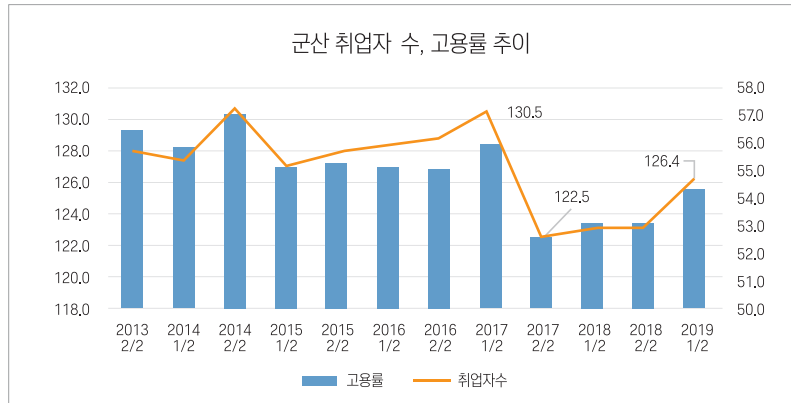
2. 정부 재정지원에 따른 최근 고용 호조세

◎ 고용 회복세 판단 근거

- 고용측면에서 보면 군산지역 조선·자동차 부문의 고용은 타 산업으로 흡수되고 있으며, 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고용수준이 일부 회복되었으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함

- 고용의 양적측면에서 산업위기 충격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회복하고 있는 상황(취업자수 '17 1/2기 130.5천 명 → '17년 2/2기 112.5천 명 → '19년 1/2기 126.4천 명)이나 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미달

- 질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소규모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군산의 피보험자 수는 '19년에 전년대비 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고용사정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 '19년 피보험자수는 57,694명으로 지난 6년간 최고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증감률인 3.88% 대비 1.17%p 높음

〈표3〉 군산시 피보험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국 (증감률)	11,785,594	12,167,889 (3.24%)	12,517,717 (2.88%)	12,823,653 (2.44%)	13,182,755 (2.80%)	13,694,792 (3.88%)
군산 (증감률)	54,562	55,383 (1.50%)	56,466 (1.96%)	55,411 (-1.87%)	54,922 (-0.88%)	57,694 (5.05%)
증감률 차이		-1.74%p	-0.92%p	-4.31%p	-3.68%p	1.17%p

* 출처: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 '19년 군산시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전년대비 크게 감소 하였고, 이직사유 22번과 23번에 의한 구직급여 신청자 또한 크게 감소되어 기업경영 악화로 인한 구직급여 여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17.7월), 한국GM군산공장 폐쇄('18.5월)에 따른 조선업 및 자동차업 관련 종사자 대규모 실직 사태 발생으로 '17년 6,689명(전년대비 14.3% 증가), '18년 7,425명(전년대비 11.0% 증가)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나 '19년은 전년대비 크게 (17.3%)감소

- 이직사유 22번과 23번에 의한 구직급여 신청자는 '19년 전년대비 39.4% 감소하여 폐업, 도산 또는 기업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에 기인한 구직급여 여건은 크게 개선

〈표4〉 군산시 구직급여 신청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 부문	신청자 수	5,837	6,218	5,854	6,689	6,144
	증감률	-	6.53	△5.85	14.3	11.0
이직사유** 22번, 23번	신청자 수	2,748	2,854	2,681	3,661	2,436
	증감률	-	3.86	△6.06	36.6	9.75

* 출처: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 이직사유 22번(폐업, 도산),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군산 산업·고용위기 2년, 일자리 변화의 진단과 전망

- '19년 군산시 실업급여 자격자와 급여액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

- '19년 실업급여 자격자는 6,126명으로 전년대비 17.2%(1,275명) 감소했고, 급여액 또한 473억5천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3.9%(76억5천6백만 원) 감소

〈표5〉 군산시 실업급여 수급자 수/실업급여액 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자 격 자 (명)	5,813	6,173	5,821	6,614	7,401	6,126
급여액(백만원)	29,346	33,548	34,780	41,782	55,011	47,355

* 출처: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 고용 회복세 원인

-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 확충으로 피보험자 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8년 대비 공공일자리 증가 인원 1,208명을 제외할 경우,
 - (피보험자 증감률) 군산시 2.85% < 전국 평균 3.88%로, 군산시가 전국 평균보다 1.03% 낮게 나타남
 - (피보험자 수) ('18년) 54,922명 / ('19년) 56,486명 ⇒ 1,564명 증가

〈표6〉 군산시 공공일자리 현황

(단위: 명)

구 분	'18년	'19년	증감	
계	2,716	3,924	1,208	
희망근로지원사업	1,741	2,561	820	
단기공공 일 자리	소계	597	807	210
	공공근로/지역공동체	219	275	56
	공공부문 청년멘토	0	22	22
	기타 기간제 근로	378	510	132
노인 일자리 사업	378	556	178	

* 출처: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 고용보험 통계 피보험자수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감소한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이 증가

- 주력산업인 제조업 피보험자는 '16년 대비 15.6% 감소
- * (제조업) '16년 23,000명 ⇒ '19년 19,407명 (3,593명 감소)
- 공공행정(47% 증가) : '16년 2,345명 ⇒ '19년 3,455명 (1,110명 증가)

〈표7〉 군산시 업종별 피보험자 수 추이

(단위: 명)

구 분	'16년	'18년	'19년	연도별 대비	
				'16년	'18년
계	57,171	56,562	59,692	2,521	3,130
농업, 임업 및 어업	206	200	204	-2	4
광업	79	69	66	-13	-3
제조업	23,000	19,440	19,407	-3,593	-3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50	627	624	74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41	632	651	10	19
건설업	3,083	3,183	3,505	422	322
도매 및 소매업	2,906	3,235	3,666	760	431
운수 및 창고업	3,990	4,403	4,639	649	236
숙박 및 음식점업	1,754	2,158	2,540	786	382
정보통신업	97	132	116	19	-16
금융 및 보험업	685	682	685	0	3
부동산업	1,329	1,400	1,473	144	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31	1,764	1,937	406	17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231	2,522	2,593	-638	7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345	3,208	3,455	1,110	247
교육서비스업	1,643	2,073	2,099	456	2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275	9,226	10,228	1,953	1,0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08	348	534	126	18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59	1,104	1,116	-143	12
국제 및 외국기관	159	156	154	-5	-2

* 출처: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3. 위기업종의 고용 전망

◎ 고용 회복세에도 군산의 위기업종(자동차, 조선) 산업기반 약화, 고용감축 계속 진행중

- 군산지역의 위기업종(자동차, 조선)에서 촉발된 경제 악화는 2년이 지난 이후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업종의 고용 감축은 계속 진행중
 - 최근 군산시에서 50개 업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위기업종에서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18-'19년 자동차업계가 100명, 기계조선업계가 256명 등 356명을 감원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2년이 지난 '20년에도 자동차업계는 26명, 기계조선업계는 9명 등 총 35명을 감원할 계획으로 나타나, 산업 및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군산 산업·고용위기 2년, 일자리 변화의 진단과 전망

〈표8〉 군산시 위기업종 고용 실적 및 계획

구분	'18-'19년 실적	'20년 계획
자동차	감원 100명	감원 26명
기계조선	감원 256명	감원 9명
합계	감원 356명	감원 35명

* 출처: 군산시 설문조사 자료('20.2)

• 위기업종의 휴폐업 또한 현재에도 진행 중

- 산업위기 업종에 '18년 9개, '19년 8개 업체가 휴폐업을 하였고,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누적 종사자 수가 '15년 12월 1,752명에서 '19년 153명으로 크게 감소

〈표9〉 군산시 주요 산업 휴폐업체 수 추이

산업	일자(년·월)	누적휴폐업	순 휴폐업	누적종사자수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015.12	71		3,345
	2016.12	79	8	3,147
	2017.12	82	3	3,186
	2018.12	85	3	2,780
	2019.12	87	2	2,708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015.12	72		1,752
	2016.12	83	11	1,260
	2017.12	92	9	228
	2018.12	98	6	216
	2019.12	104	6	153

* 출처: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4. 위기업종의 전 재직자의 현주소

◎ 군산의 위기산업(자동차, 조선) 종사자, 재취업 현황 분석

• 위기업종(자동차, 조선산업) 전 재직자의 재취업 현황

- 국민연금자료에 따르면 '17년 기준 한국GM군산공장(이하 한국GM)에는 1,568명이, 기타운송장비제조업에는 596명이 취업
 - 이들 중 '20년 1월 기준 취업자 수는 각각 1,052명, 350명으로 실업자는 각각 512명, 246명임
 ※ 일부 불일치는 사망, 공무원 제외에 기인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인력은 대부분 타지역(경남, 울산 등)에 거주지를 두고 있어, 군산지역 소재 인원이 너무 적어 분석을 기타운송장비제조업으로 함

• 재취업자 중 동종업계 취업자 비중이 50.9%에 불과

- 한국GM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비롯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들의 동종업 재취업 비중이 각각 59.3%, 25.4%로, 동종업종의 일자리 흡수율이 낮은 현실을 반영

- 한국GM 이직자 중 군산지역 동종업 종사비율은 54.5%로, 기타지역의 73.3%에 비해 낮은 편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이직자 중 군산지역 동종업 종사비율은 29.0%로, 기타지역에 비해 높으나 자동차산업 제조업 종사자 비율에 비해 25.5%p 낮음

• 위기업종의 실업자는 대부분 군산에 거주

- 자동차산업의 경우 '17년에 비해 27.6% 인력이 실업자 상태로 군산에 거주하며,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경우 '17년 대비 33.1%가 군산에 거주하며 실업자 상황에 있음
- 군산을 떠난 실업자는 자동차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이 각각 5.0%, 8.2% 수준으로 대부분 실업자가 지역에 남아있음

〈표10〉 한국GM 및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재직자 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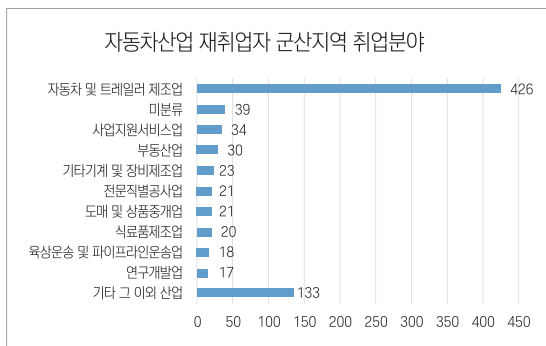
구 분	2017년 취업자	2020년 1월				실업자
		취업자				
		군산	합계	동종업종**		
한국GM	1,568명	군산	782	426	356	434
		기타	270	198	72	78
		합계	1,052	624	301	512
기타운송장비제조업	596명	군산	262	76	186	197
		기타	88	13	75	49
		합계	350	89	261	246

* 출처: 국민연금공단, 불일치는 사망, 공무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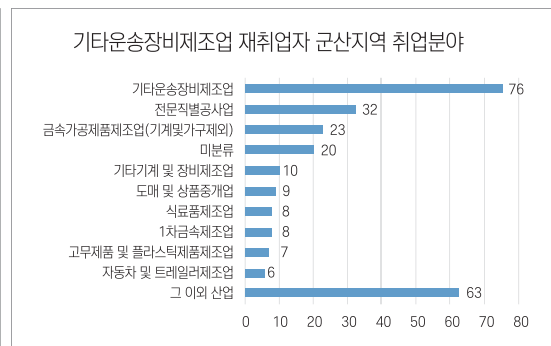
** 동종업종: 한국GM은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군산지역에 거주하는 위기업종(자동차, 조선산업)의 업종별 재취업 현황

- '20년 1월 현재 군산에 취업한 기존 한국GM 근무자는 782명으로, 이 가운데 426명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분류,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동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순
- '20년 1월 현재 군산에 취업한 기존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근무자는 262명으로, 동종업종에 76명이 취업하고 다음으로 전문직별공사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미분류, 기타기계장비제조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순



*'17년 기준 한국GM 군산공장 근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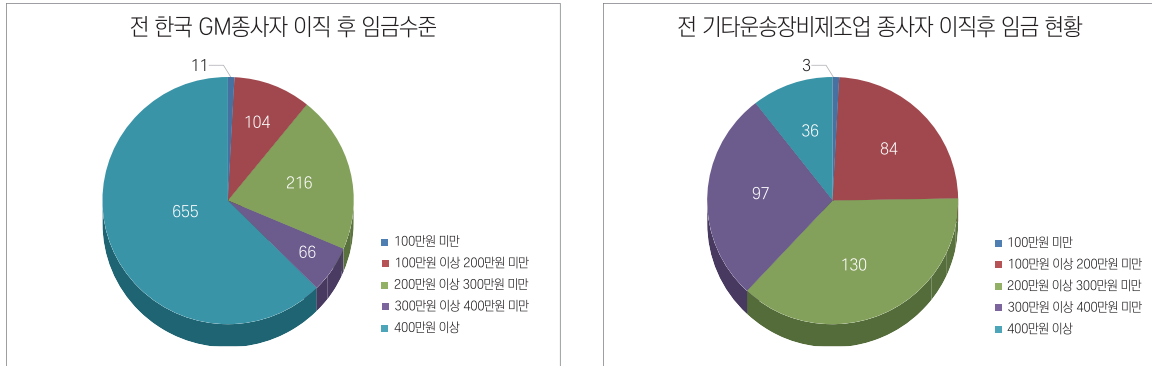


• 위기업종에서 이직한 취업자의 평균 임금 수준 크게 하락

- 한국GM 종사자와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의 이직후 임금 수준은 각각 383만원, 274만원 수준
- 한국GM 종사자 이직후 임금을 세분해서 보면 400만 원 이상인 비율이 62.3%로 가장 높았으며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20.5%로 그 다음으로 높음

군산 산업·고용위기 2년, 일자리 변화의 진단과 전망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 이직후 임금 수준을 세분하여 보면, 400만 원 이상 비율은 10.3%에 불과,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인 37.1%로 가장 높음



• 위기업종(자동차, 조선)의 전 재직자 연령별 실업현황

- '20년 1월 기준 한국GM 군산공장 전 재직자의 연령별 실업현황을 보면, 총 실업자 가운데 45세 이상-50세 미만이 가장 많은 164명, 40세 이상-45세 미만이 66명, 50세 이상-55세 미만이 59명 순
- '20년 1월 기준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전 재직자의 연령별 실업현황을 보면 총 실업자 가운데 35세 이상-40세 미만이 44명, 40세 이상-45세 미만이 4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45세 이상-50세 미만이 29명, 35세 미만이 26명 등 자동차 산업에 비해 연령층이 낮은 실업 비중이 높았음

〈표11〉 위기업종(자동차,조선) 전 재직자 연령별 실업 현황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45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세 미만	55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총합계
한국GM	군산거주	1	52	66	164	59	56	36	434
	전국	3	62	81	190	70	66	40	512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군산거주	26	44	44	29	20	14	20	197
	전국	36	58	52	33	29	16	22	246

* 출처: 연금공단 자료

◎ 유사사례 비교

- 미국 위스콘신주 Janesville은 '07년 GM공장이 철수한 이후, Blackhawk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고 고용자들의 재교육을 실시
 - 전직, 이직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제공에도 불구하고,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이 61.3%로 미참여자의 취업률보다 10.5%p 낮았으며
 - 프로그램에 참여함에도 임금 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피할 수 없었음. 프로그램 참여 해고 고용자의 '07년 평균 분기소득은 \$7,294이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 \$3,348 소득을 올림
- 군산의 경우 GM 퇴직자들의 취업률은 67.1%로 두 그룹의 중간 정도의 취업률을 보였고, 임금수준 또한 383만 원으로 \$3,191 수준(환율 1:1200 기준)이어서 자동차 노조의 고임금 특성을 고려한다면 50% 이상의 평균소득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미국 위스콘신주 Janesville 사례

- 미국 위스콘신주 Janesville은 '07년 GM공장이 철수한 이후 Blackhawk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고 고용자들의 재교육을 실시함. 아래는 GM공장이 철수한 후 재교육에 대한 일부 조사 결과이며, 재교육 보다 더 적극적 산업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31,51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은 61.3%, 프로그램 미참여자의 취업률은 71.8%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이 낮음

〈 프로그램 참여와 일자리 〉

	2007 이전	2011년 말
프로그램참여 해고 고용자*	87.5%	61.3%
프로그램 미참여 (Rock & Green Counties) 해고 고용자**	92.7%	71.8%

주: *1,740명(2008 여름에서 2010 여름까지), **30,777명(2007에서 2011년 여름까지 실업급여 받은 자)

-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11년 말 분기소득이 \$3,348인 반면 프로그램 미참여자는 \$6,210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소득이 낮음

〈 재교육이 소득에 미친 영향 〉

	프로그램 참여 해고 고용자	프로그램 불참 해고 고용자	프로그램참여 기타
2007년 평균 분기소득	\$7,294	\$7,239	\$1,636
2011년 말 분기소득	\$3,348	\$6,210	\$2,788

자료: Janesville: An American Story (Amy Glolstein) P313 & 314페이지 참고

5. 시사점

◎ 산업위기는 오랫동안 지역의 큰 상처로 작용

- 위기업종(자동차, 조선산업)의 재취업 현황으로 볼 때
 - 위기발생 이후 2년 지난 시점에서도 재취업하지 못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고, 취업에 성공한 재취업자들은 큰 소득감소를 감수해야 하므로 위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해야 함
 - 개인 차원에서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동종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 위기는 인구 유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군산 산업·고용위기 2년, 일자리 변화의 진단과 전망

-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알선이 단기처방은 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유능한 자원의 낭비, 개인적으로는 큰 소득 감소를 감수해야 함

- 실업상태인 위기업종 전 재직자들이 군산에 상당한 부분 남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밀접한 관리 필요

◎ 정부 지원에 따른 희망의 싹 발견

- GM을 떠나 독자적인 제품개발 R&D 수행, 신재생 등 대체산업에 투자 확대 등 기업차원에서 자생력 확보를 위한 몸부림으로 일부 결실을 맺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대체부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조선업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대체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노력 기울임

- 정부에서는 친환경신산업 분야 대체산업육성지원사업, 10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상용차 관련 인프라, 풍부한 관광자원, 새만금 지역 등을 활용한 지역산업 생태계 보강산업을 지원할 예정

- 지자체와 정부는 위기산업의 고도화, 대체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회생에 노력하고 있음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근로자·기업지원, 위기산업 보완 대체육성, 지역활력 지원으로 나눠 지원되었으며, 군산지역에 8,026억 원의 생산유발, 2,951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그리고 6,46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정됨
 - '20년 2월 군산시 자동차 조선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59.6%가 정책적 지원이 기업매출에 도움이 되었고, 67.3%가 정책적 지원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임

◎ 위기는 사전에 대응해야, 위기경보시스템 마련 필요

- 위기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라이프사이클 차원의 사전산업정책 조정시스템과 단기적 위기경보 시스템 마련 등 두 트랙으로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산업 라이프사이클 차원 사전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정책의 장기 비전 설정, 주력산업, 성장산업 성숙산업에 대한 관리 필요

- 개별 산업은 각자의 산업 라이프사이클에 영향을 받으며, 성숙기 산업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성숙기 산업이 쇠퇴기로 가지 않도록 고도화 하는 전략 마련과 더불어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병행하여야 함

- 지역 경기 모니터링 수준에서 위기경보시스템 마련 필요

- 단기적으로 산업 및 고용위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하여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위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 전북연구원에서도 경제위기의 사전진단 및 분석을 위해 '20년부터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



ISSUE BRIEFING
2020. 03. 23 **Vol. 217**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